

광주·전남도 '반값 등록금' 관심 폭발

학생·학부모들 인하 요구 거세 "정물보다 정액 인하" 한목소리

'반값 등록금'이 사회적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광주·전남지역 대학생과 학부모들도 이의 관철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의 제의로 촉발된 '반값 등록금' 문제가 대학생들의 촛불시위로 이어지고, 등록금의 실질적 부담자인 학부모들까지 집회에 참여해 인하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민들도 정치권

의 등록금 논의 추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대학가에서는 매년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경영난을 명분으로 내세운 대학 논리에 눌려 등록금이 상승일로였다. 지역에서는 경기가 최악이었던 2009년과 2010년 2년 동안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했으나 올해는 또다시 평균 3% 정도를 올려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된 상태다.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은 올해 초 2011학년도 등록금 동결 및 인하 투쟁을 어느 해 보다 강력하게 벌였으나 대학들의 인상을 저지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정치권이 반값 등록금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지역민들의 등록금 인하 요구는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등록금을 점차적으로 낮추는 350만원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민주당도 대학생들의 '촛불시위'로 등록금 정책에 대한 불만 여론이 커지자 애초 2013년이었던 반값 등록금 전면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여·야가 이번 주부터 반값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여론 수렴 및 정책 현실화 작업에 나설 예정인데다 최근 사립대학총장협의회도 정부 지원을 전제로 일정 수준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과 관련해 각 대학들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값 등록금 여론이 대세가 되면서 지역민들 사이에는 등록금 인하는 기본이고, 인하율이 아닌 인하 액수를 기준으로 등록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 사립대학들의 평균 등록금은 850만원대지만 광주·전남지역은 650만원선으로 200만원 정도가 적은 점을 감안, 일정 비율로

인하해서는 안되며 일정 액을 줄여 중앙과 지방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대와 순천대·목포대·목포해양대 등 지역 국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연간 410만원이며, 조선대와 호남대·동신대·광주대·광주여대 등 주요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680만원 내외로 사립대가 270만원 가량 비싸다.
지역 사립대 학부모인 김성수(48·회사원)씨는 "사립대의 경우 국립대보다 70% 가까이 비싼 점을 고려해 국적이 실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대학 등록금 전면감사 감사원 역대 최대규모 200명 투입

감사원은 10일 국립 및 사립대학교 등록금 산정 기준의 적절성과 재정 운영 상황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착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이는 사립대의 경우도 재정의 절반 이상이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충당되고 있음에도 부당 지출이 관행처럼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소 교육 분야에 관심을 갖고 각급 학교의 특별전형 등 학사관리와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해온 양건 감사원장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내주 감사를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본격 과업 및 내달 4일경부터 예비감사를 거쳐 8월 중에 원 전체가 참가하

는 본감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감사는 TF에만 20여명이, 본감사에는 전체 감사인력의 3분의 1 이상인 200여명이 참가하는 등 사실상 감사원 출범 이후 최대 규모라고 손창중 감사원 공보관이 전했다.
감사원은 감사에서 등록금 산정의 적절성, 자금 전출입 등 회계관리 적정성,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 적정성, 연구개발(R&D) 지원·관리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방침이다.
감사원은 전국 200여개 국립대, 사립대의 재정운영상태를 서면분석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금 인상률, 재정규모, 학교운영비 부담률, 지역 등을 고려해 실제 감사 대상 대학을 선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알림

제20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 바둑대회



- 일 시: 2011년 7월 10일(일) 오전 10시
- 장 소: 한국기원 광주지원(광주시 주월동 국제호텔 건너편 3층)
- 참가자격: 광주·전남지역 근무 직장인
- 팀 구성: 단체전=1팀3명(주장·부장·삼장)
개인전=각 팀에서 1명
- 참가신청: 7월8일(금) 오후 5시까지
한국기원 광주지원 062-675-3448
광주일보 문화홍보국 062-220-0541
- 참가비: 1팀당 3만원(개인전 포함)
- 시상: 단체 및 개인별 우승, 준우승, 3위
입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 수여
- 시상식: 7월 11일(월) 오전 11시 광주일보 16층

주최: 光州日報社 후원: 광주광역시바둑협회

출판기념회 1만 운집 막오른 대선의 계절

김정길 前장관 광주 집회 대성황



1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1만여 명(경향 추산)이 넘는 '구름 군중'이 몰리면서 지역정치가 벌써 대선 전초전에 휩싸인 분위기다. <관련기사 5면>
특히 최근 광주지역 정치 집회에서, 그것도 개인의 출판기념회에 1만여 명 이상의 군중이 몰린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날 행사는 주목을 끌었다.
주최 측은 경찰 추산 1만여 명보다 훨씬 많은 2만여 명이 이날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잠정 추산하고 있다.
사실 이날 6000㎡ 규모의 행사장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인파로 가득 찼고, 행사장에 입장하지 못하고 복도 등에서 행사를 지켜 본 인파까지 감안하면 실제 참석자는 1만여 명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광주·전남에서 치러진 각 정당 및 정치인들의 행사에 참석한 인원 수가 수 천명 선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최근 2년 사이

광주에서 열린 정치행사 중 최대 규모인 셈이다.
이에 따라 지역정가에서는 이날 행사 참석자 수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등 사실상 대선 전초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날 행사에는 길벗 회원 등 김 전 장관의 지지자 1만여 명이 모여 '김정길'을 연호하고, 행사장 주변에는 '낙동강 오리알 김정길, 2012년 부화한다' 'JK(김 전 장관의 영문 이니셜) 원하는 희망의 나라로' '부산 왕바보 대한민국 화이팅'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대권출정기를 방불케 했다.
또한, 전국의 '길벗' 회원들이 전세 버스로 광주를 찾으면서 행사장 주변도로는 전국 각지의 전세 버스로 가득 차는 등 오랜만에 정치집회다운 면모를 보였다는 평가다.
대권 후보로서는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김 전 장관 측이 이날 출판기념회에 많은 군중을 동원하며 '울인' 하고, 광주에서 대권 도전 의사가

12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몰려든 1만여 명의 지지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가정폭력상담원

● 교육일시: 2011년 7월 4일(월)~
*매주 월, 화, 목, 금 18:00 ~ (총100시간)
☎ 062)605-1112, 1063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새롭다, 즐겁다, 뉴질랜드 어학연수

현지 학생들과 수업하며 생생영어 배워요

광주일보가 뉴질랜드 어학연수 전문기관인 한뉴문화교류센터(www.hannew.org.nz)와 공동으로 현지학생들과 수업을 받는 정통 영어 어학연수를 실시합니다.

특징 1 현지학교 매일 수업참여

기존 '해외외형' 연수가 아닌, 새학기를 시작하는 뉴질랜드 학생들과 현지학교 교실에서 연수기간 내내 정규수업을 받으면서 영어실력을 키웁니다.
연수생의 어학수준에 맞게 학년을 배치하며 오전엔 별도 영어교육도 실시한다.

특징 2 학생 집에서 매일 홈스테이

연수생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현지 학생들의 집을 선별해 연수

기간 내내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홈스테이를 갖는다.
교사가 주 1회 기정을 방문해 학생의 생활상황도 체크한다.

특징 3 연수생 안전에 만전

홈스테이 전담 선생님이 있어 연수생들이 현지 생활에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24시간 학생보호 시스템을 운영한다.
현지 학교 교직원과 한뉴문화교류센터 교직원들이 학교에 상주하면서 연수생들의 학교생활을 밀착 관리한다.

연수기간 | 2011년 7월 28일 ~ 8월 25일
연수학교 | Howick Intermediate School 등 4개교
연수대상 | 초등 4~6학년, 중학생 1~3학년

연수인원 | 선착순 40명
신청마감 | 2011년 6월 23일
문의 | 062-220-0641 · 019-268-3635

| 주 최 | 광주일보사 | 주 관 | 한뉴문화교류센터